

KBS Symphony Orchestr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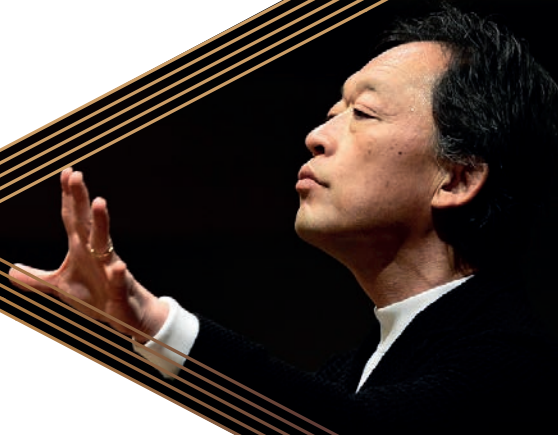
# Masters Series

“수신료의 가치, 감동으로 전합니다”

2 0 2 4

##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



모두가 즐기는 공연  
여러분의 배려로 시작됩니다

#### 공연 관람 에티켓 5계명

- ① 휴대전화의 전원을 종료하거나 무음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 ② 주변 관객을 위해 공연 중 일행과의 대화를 삼가 주세요.
- ③ 음악이 잠시 멈추는 악장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자제해 주세요.
- ④ 연주에 방해되는 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세요.
- ⑤ 사진 촬영은 공연이 끝난 후 커튼콜에만 가능합니다.

## 2024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I

2022년부터 시작된 KBS교향악단의 마스터즈 시리즈는 지휘자 또는 협연자를 선정하여 보다 심도있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그 연주자들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시리즈이다. 기존 공연 형식과의 차별성을 통해 2024년, 정명훈의 지휘로 장엄한 고결함과 자애로운 따뜻함이 어우러진 이탈리아 종교음악의 정수를 KBS교향악단의 연주로 선사한다.

# PROGRAM

베르디  
G. Verdi

레퀴엠, 작품48  
Messa da Requiem, Op.48

🕒 90'

- I. Requiem and Kyrie (레퀴엠과 키리에) - 합창, 4중창
- II. Sequenza (속송)
  - 1. Dies irae (진노의 날) - 합창
  - 2. Tuba mirum (오묘한 나팔소리) - 합창, 베이스
  - 3. Liber scriptus (기록된 책) - 합창, 메조소프라노
  - 4. Quid sum miser (불쌍한 이)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 5. Rex tremendae (두려우신 임금이시여) - 합창, 4중창
  - 6. Recordare (기억해주소서)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 7. Ingemisco (저는 탄식하나이다) - 테너
  - 8. Confutatis (악인들) - 합창, 베이스
  - 9. Lacrymosa (눈물의 날) - 합창, 4중창
- III. Offertorio (봉헌송) - 4중창
- IV. Sanctus (거룩하시도다) - 합창
- V.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 - 합창,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 VI. Lux aeterena (영원한 빛) -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 VII. Libera me (저를 구원하소서) - 합창, 소프라노



# MYUNG-WHUN CHUNG CONDUCTOR

## 지휘 정명훈

“그는 영적인 지휘자” - 프랑스 <르 몽드>지

마에스트로 정명훈은 이 시대에 가장 깊은 존경과 추앙을 받는 지휘자 중 한 명이다.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로열 콘세르트헤바우 오케스트라 등 세계 최정상급 교향악단을 지휘했으며, 세계 유수 오페라극장의 포디움에 올랐다. 독일 자르브뤼켄 방송교향악단 상임지휘자, 피렌체 테아트로 코무날레 수석객원지휘자, 파리 오페라 바스티유 음악감독, 로마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 수석지휘자,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음악감독,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를 역임하였다. 현재 KBS교향악단 계관지휘자, 드레스덴 슈타츠크펠레 수석객원지휘자, 도쿄 필하모닉 명예예술감독 및 아시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음악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2023년 3월 이탈리아 라 스칼라 필하모닉 역대 최초 명예지휘자로 임명된 바 있다.

1990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사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맺은 정명훈은 오페라 바스티유와 함께한 메시앙의 ‘투랑갈릴라 교향곡’을 시작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말러 교향곡 제2번, 베토벤 교향곡 제9번 등 도이치 그라모폰에서만 40개가 넘는 음반을 발매했다.

2011년 평양을 방문하여 한반도의 평화 교류에 공헌했으며, 2017년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일본, 캐나다의 정상들이 참석한 G7 국제정상회담을 기념하는 연주회에서 라 스칼라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등 음악을 통한 인도주의적 대의 실현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펼치고 있다.

클래식 음악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6년 대한민국 최고 문화훈장인 ‘금관훈장’을 수훈하는 영예를 안았고, 1991년 프랑스 극장 및 비평가 협회가 수여하는 ‘올해의 음악가 상’, 2011년 프랑스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등급의 문화예술공로훈장인 ‘코망디르’에 이름을 올렸으며, 2013년 이탈리아 베니스의 ‘평생음악상’, 2017년 이탈리아의 국가공로훈장을 수여받았다.



# MIJA PARK

## SOPRANO

소프라노 박미자



소프라노 박미자는 이화여자대학교 성악과 졸업 후 이태리 파르마 국립 음악원을 졸업하고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 아카데미아를 이수했다.

스페인 자코모아라갈 국제 콩쿠르 1위, 이태리 스파치오 무지카 국제 콩쿠르 1위, 빌바오 국제 콩쿠르 등 10여개의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스페인 아리아극장에서 <돈 파스칼레>의 노리나 역으로 오페라 무대에 데뷔한 후 <라 트라비아타>, <리골레토>를 비롯하여 이탈리아 벨칸토 주요 오페라 주역으로 이태리, 스페인, 크로아티아 등 유럽에서 활발히 활동했다. 고난이도의 오페라 윤이상의 <심청>으로 한국 무대 데뷔 이후 <춘향전>,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사랑의 묘약>, <마술피리> 등 오페라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그녀는 한국을 대표하는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서 명실공히 최고의 프리마돈나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수십 작품의 오라토리오 주역가수로도 활동 중이다. 2010년 대한민국 오페라대상 여자주역상을 수상하였고 뉴데일리 선정 2017년 올해의 성악가상과 2019년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악대상을 수상하였다.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이다.

# CELESTE BANG

## MEZZO-SOPRANO

메조소프라노 방신제



총신대학교 교회음악과 졸업 후 이탈리아 로마 산타체칠리아 국립 음악원을 졸업, 조교과정을 이수한 메조소프라노 방신제는 밀라노 스칼라 극장 아카데미아에서 동양인 최초의 메조소프라노로 이탈리아 정부 장학금을 받으며 졸업하였고, 이후 코르시코 시립음악원, 키지아나 아카데미아 최고연주자과정 디플로마를 수료, 이탈리아 모데나 오라치오 베키 토넬리 음악원 성악과 전문가 과정을 졸업하였다.

이외에도 음악저널콩쿠르 전체 대상, 리카르도 잔도나이 국제콩쿠르 1등 및 특별상, 로마국제종교음악콩쿠르 2등, 포르토포노국제콩쿠르 특별상, 사르차나 오페라 페스티벌 스피로스 아르지리스 국제 성악 콩쿠르 3등을 수상하였으며, 다수의 국제콩쿠르에서 우승 및 입상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성악과의 외래교수로 재직 중인 방신제는 밀라노 라스칼라 극장을 비롯해서 서유럽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국립오페라단, 서울시립오페라단, 국립합창단, 서울시립합창단 등 유수의 단체에 솔리스트로 출연하고 있다.

# WOOKYUNG KIM

## TENOR

테너 김우경



테너 김우경은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를 졸업 후 독일 뮌헨 국립 음악대학 Meister Klasse 과정을 졸업하였다.

그는 한양대 재학시절 중앙음악콩쿠르 1위를 비롯해서 플라시도 도밍고 국제 성악콩쿠르 1위, 스페인 비냐스 국제 성악콩쿠르 1위, 핀란드 미르암 헬린 국제 성악콩쿠르 1위 등 권위 있는 많은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국제무대에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세계 3대 오페라극장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런던 코벤트가든, 이탈리아 라 스칼라 극장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하였으며 뮌헨 국립극장, 드레스덴 젬퍼오퍼, 베를린 도이체오퍼, 함부르크 슈타츠오퍼, 일본 신 국립극장, 베를린 슈타츠오퍼, 홍콩 국립극장, 프랑크푸르트 오페라극장, 이탈리아 피렌체 오페라극장, 프랑스 툴루즈 국립극장, 보르도 오페라극장 등 세계 여러 극장에서 수많은 오페라 작품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헨델, 모차르트, 베토벤, 베르디 작품의 종교음악을 빈 필하모닉, 드레스덴 슈타츠카펠레 등과 협연하며 오라토리오 가수로도 활발히 활동하였다.

그는 현재 한양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오페라 가수 및 전문연주자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 KIHWAN SIM

## BASS

베이스 심기환



세계 최고 권위 페스티벌 중 하나인 영국 BBC Proms의 2022년 개막 작품 베이스 솔리스트에 선정되어 로알 알버트 홀에서 공연한 베이스 심기환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 수석졸업 후 독일 함부르크 국립 음악 대학에서 오페라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수석으로 졸업, 동아콩쿠르 2위, 헬싱키 미르암 헬린 국제 성악 콩쿠르 1위, 파리 롱 티보 크레스팽 국제 콩쿠르 1위, 독일 노이에 슈티멘 국제콩쿠르 2위, 프랑스 파리 오페라 국제콩쿠르 2위 등 다수의 콩쿠르에 입상하며 두각을 나타내 왔다.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오페라 하우스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 오페라 <라보엠> 콜리네 역으로 뉴욕 타임스 등 여러 언론사에 극찬을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한 그는 영국 런던 로열 오페라 하우스, 모스크바 볼쇼이 오페라 극장, 코펜하겐 오페라 극장, 부다페스트 오페라 극장, 프랑스 니스 오페라 극장 등 전 세계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페라 가수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현재 세계 최고 오페라 극장인 프랑크푸르트 오페라 극장의 솔리스트로서 다수의 오페라에 베이스 주역으로 활동 중이다.

## 고양시립합창단



2003년 11월에 창단한 고양시립합창단은 정기연주회를 비롯한 시민들을 위한 지역문화 행사와 기획 연주, 퇴근길 비타민 음악회, 찾아가는 음악회를 통해 모든 이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108만 행복도시, 600년 문화도시 고양시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공원을 비롯하여 광장, 도서관, 학교, 군부대 등 시민들이 요청하는 어떤 곳이든 직접 찾아가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공연을 개최하고 늘 시민과 함께하는 프로합창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안양시립합창단



안양시립합창단은 1987년 창단되어 130여 회의 정기기획공연, 그리고 유수의 교향악단과의 협연으로 고전에서 현대음악에 이르는 폭넓은 레퍼토리를 선보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가곡, 성가, 팝송 등을 담은 9장의 음반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2013년 정명훈의 지휘로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한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이 도이치 그라모폰에서 발매되기도 했다. 2014년 제10회 세계합창심포지엄에 초청받아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무대에 올리는 등 수준 높은 음악성을 지닌 한국 합창의 우수성을 알리고 있다.

## 하남시립합창단



1990년 창단된 하남시립합창단은 아름다운 하모니로 시민과 소통하고 폭넓은 레퍼토리로 지역 문화예술 진흥 기반을 강화하는 전문합창단이다. 하남시립합창단은 유럽의 전통 합창곡을 주제로 한 정기연주회로 양질의 합창음악을 제공하고 참신한 레퍼토리의 기획연주회로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무대를 선사하였다. 30만 하남시민들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합창 페스티벌 <하남의 울림>은 지역 합창문화 저변 확대 및 수준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젊고 신선한 바람으로 합창계에 선한 영향력을 더해진 하남시립합창단은 앞으로도 한국 합창음악의 발전과 시민 문화정서 함양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칠 것이다.





## 대한민국 교향악단의 자존심 KBS교향악단!

###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을 선도하는 국가대표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1956년 창단되어 수준 높은 연주를 통해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 발전을 선도해 왔다. 임원식 초대 상임지휘자를 시작으로 홍연택, 원경수, 오토마 마가, 정명훈, 드미트리 키타옌코, 요엘 레비 등 세계 최정상급의 지휘자들이 KBS교향악단을 이끌었다. 2012년에는 전문예술 경영체제를 갖춘 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하였으며, 2022년 제9대 음악감독으로 피에타리 잉키넨 지휘자가 취임하며 현재 명실상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향악단으로 자리매김하였다.

### 언제 어디서나 감동을 전하는 국민의 교향악단

KBS교향악단은 교향악부터 실내악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수준 높은 연주를 들려주는 정기연주회를 비롯하여 시즌 및 주제별로 관객과 소통하는 초청, 기획연주회 그리고 클래식 음악을 쉽게 접할 수 없는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음악회까지 매년 100회 이상의 공연으로 10만 명이 넘는 관객에게 고품격 음악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공연 현장에서 함께할 수 없는 관객을 위해 KBS교향악단의 연주는 KBS TV와 라디오를 통해 전국에 중계함으로써 국민의 교향악단으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다.

### K-클래식의 새 역사를 만들어 가는 콘텐츠 허브 교향악단

2018년 세계적인 클래식 음반 레이블인 '도이치 그라모폰(DG)'에서 실황음반을 발매하며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체코슬로바키아 건국 100주년 기념연주회, 2019년 한국 폴란드 수교 30주년 기념 순회공연과 오스트리아 빈 무지크페어아인 황금홀 특별연주회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2023년에는 영국 에든버러 인터내셔널 페스티벌에 참가해 공식 연주 평가에서 5점 만점을 기록하며 대한민국 클래식 음악의 위상을 세계에 알렸다. 코로나 시대에도 KBS의 온라인 4채널을 모두 동원한 무관중 공연으로 2만 3천여 명 실시간 관람 기록을 세우고, 실황 영상 아카이브 '디지털 K-Hall'을 오픈하며 고품격 음악콘텐츠의 무료 제공 기틀을 마련하는 등 클래식 음악의 디지털콘텐츠 허브로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다. KBS교향악단은 언제나 차별화된 연주와 창의적인 기획을 통해 국민과 공감하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클래식 문화브랜드로 함께 할 것이다.

##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장엄한 슬픔

이탈리아의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가 급서하자 주세페 베르디는 그의 죽음 앞에 헌정하는 종교 작품 하나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장구한 이탈리아 종교음악의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는 이 작품은 밀라노 산 마르코 대성당에서 초연되었다. 네 명의 독창자와 대규모 합창단, 오케스트라가 혼연일체로 뒤엉켜 자아내는 극적이고 호소력 짙은 음악 속에는 필멸하는 존재에 대한 뜨거운 애도와 구원을 향한 인류의 애절한 갈망이 한데 뒤엉켜 있다. 지휘자 정명훈의 <레퀴엠> 해석은 언제나 폐부를 찌르는 감동을 주는데, 대리석처럼 찬란하게 뻗어 나가는 정통 이탈리아 성악 예술의 자애로운 따뜻함 위에 꿈틀거리며 포효하는 오케스트라의 수직적인 진노가 잊을 수 없는 예술적 장관을 연출한다. 장엄한 슬픔으로 가득 찬 종교음악의 최고봉을, 당대를 대표하는 대가의 지휘봉으로 만나볼 기념비적인 시간이다.

### 베르디, 레퀴엠, 작품48

G. Verdi, Messa da Requiem, Op.48

#### 작곡연도

1874년

#### 초연

1874년 5월 22일 이탈리아 밀라노

#### 편성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혼성합창단,  
플루트3(제3주자는 피콜로 겸함),  
오보에2, 클라리넷2, 바순4, 호른4,  
트럼펫2, 트롬본3, 튜바,  
팀파니, 베이스드럼, 현5부,  
(off-stage instrument) 트럼펫4

#### 연주시간

약 85-90분

“모든 것은 끝났다”, “그의 죽음과 함께 가장 숭고하고 거룩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영광은 끝났다.” - G. Verdi

1873년 5월 23일 당대 이탈리아를 대표하던 대문호 알레산드로 만초니가 서거했다. 그의 대표작 <약혼자들 I promessi sposi>은 스페인 강점기 북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주를 배경으로, 압제자에 대한 농민들의 위대한 항거를 가톨릭 이상주의와 뜨거운 휴머니즘의 필치 아래 생생히도 그려냈다. 이 작품의 파급력은 놀라워서, 지금도 이탈리아 사회 각계각층의 필독서이자 교황 프란치스코께서도 가장 자주 인용하는 소설이다.

평소 빅토르 위고나 프리드리히 쉴러의 낭만주의적 휴머니즘을 동경하고, 그들의 작품을 <리골레토>나 <루이자 밀라> 등의 오페라로 만들어왔던 베르디가 만초니를 존경하고 흠모했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생전 먼 발치에서 만초니를 단 한 번 만났다고 하는데, “떨리는 가슴을 가눌 수가 없었다. 그저 엎드려 절을 드리고 싶은 심정이었다”는 감격 어린 소회를 지인에게 편지로 남기기도 했다. 그러니 베르디가 만초니의 서거 소식을 접했을 때 그 슬픔이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고향 부세토에서 침잠하며 개인적인 추모의 시간을 보낸 베르디는 곧 출판업자 줄리오 리코르디에게 연락하여 만초니의 서거 1주기에 그에게 헌정할 진혼미사곡을 작곡해 추모 연주회를 열겠다는 계획을 밝힌다. 초연은 1874년 5월 22일, 밀라노 라 스칼라 근처의 장엄한 대성당 산 마르코에서 엄숙하게 이뤄졌고, 곧 전 유럽 각지에서 연주되었다.

<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한 진혼의 음악으로, 가톨릭 문화권에서는 가장 중요한 종교음악 양식에 속한다. 일찍이 모차르트가 남긴 걸작을 비롯해 포레, 드보

르자크의 레퀴엠이 유명하고, 브람스는 독일어로 된 레퀴엠을 작곡해 이 장르에 기념비적인 이정표를 세웠다. 한편 베르디 <레퀴엠>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렬한 장엄함과 짙은 인간적 호소력의 조화다. 제1곡 '레퀴엠과 키리에(Requiem et Kyrie)'는 첼로의 고요한 하강 악구를 따라 차분하고도 엄숙하게 전개된다. 그러나 곧이어 제2곡 '속송(Sequenza)'의 첫머리를 장식하는 '진노의 날 (Dies irae)'이 도래하면, 어마어마한 오케스트라의 총주 속에 최후의 심판 날 하늘에서 분노의 불화살이 쏟아지는 듯한 폭발적인 음악이 터져 나온다. 이어지는 음악은 네 명의 독창 성악가들과 합창이 어우러져 장엄하고 극적인 바로크 종교화 같은 느낌으로 진행된다.

'오묘한 나팔 소리(Tuba mirum)'는 죽은 자를 불러 깨우는 초혼 의식을 나타내고, '기록된 책(Liber scriptus)'는 메조소프라노의 장절한 가창으로 웅장한 표정을 지녔다. 이어지는 기도문 속의 테너 솔로 '저는 탄식하나이다(Ingemisco)'는 매우 인상적인데, <레퀴엠>의 대표적인 독창곡이자 이 작품의 성격을 규정짓는 핵심적인 음악이다. 놀랍도록 선연하고 진한 '인간적 면모' 때문이다.

담백하고 금욕적인 표정의 모차르트 <레퀴엠>과는 달리 베르디의 음악은 좀 더 감정에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음악이다. 이것은 우선 18세기 고전파 음악가였던 모차르트와 낭만주의 시대를 관통했던 베르디의 시대적 차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기악적인 전통이 우월한 독일-오스트리아의 음악가와 성악과 오페라의 나라, 이탈리아 출신 작곡가의 일종의 기질적 차이로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탈리아 가톨릭 특유의 가족주의적 자애로움과 인간적 따뜻함의 투영이야말로 베르디 <레퀴엠>과 다른 곡들을 구별하는 가장 본질적 특질이라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 절대자인 신은 금욕적인 경배를 바쳐야 될 대상임과 동시에, 자애로운 아버지이자 어머니, 즉 부모 같은 존재다. 이런 부성에 혹은 모성애의 대상으로서의 신에게 신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면서도 인간적인 기도를 올린다. 베르디의 <레퀴엠>이 모차르트나 드보르작 등에 비해 훨씬 더 애끓는 인간적 호소로 가득 차 있는 건 이런 세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하여 테너의 낭랑한 미성은 수직으로 기립하여 서 있는 이탈리아 대성당의 장엄한 대리석 기둥을 연상케 하고, 그 음률 속에 깃든 상아빛 따뜻함과 애절한 호소력은 왜 이 음악이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깊게 울리는지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준다.

초연 전후로 독일 등지에서는 '너무 오페라풍이어서 종교적 신성함이 되려 떨어진다'는 반응도 있었다. 그러나 이 음악을 관통하는 핵심 정서는 딱딱하고 위압적인 '고딕적 금욕주의'가 아니다. 이탈리아 특유의 지중해적인 윤후함이 신을 향한 애절한 갈구와 어우러지고, 거대하게 포효하는 오케스트라의 폭포수 같은 음향이 더해진다. 작곡가 베르디가 한 시대의 거인 만초니에게 바쳤던 개인적 추모의 음악은 곧 온 인류의 것이 되었고, 돌아가신 이를 추도하고자 하는 남은 이들의 애달픈 기도는 이제 우리 모두를 향한 고결한 노랫소리가 되었다. 죽은 자를 추모하는 종교적 엄숙함의 측면에서도, 산 자를 위무하는 자애로운 정서적 측면에서도 베르디의 <레퀴엠>을 능가하는 작품은 쉽게 찾기 힘들다. 화염을 토하듯 떨어지는 '진노의 날'과 애절한 솔로 독창곡들의 대비, 스펙터클한 합창의 강렬한 포효를 뚫고 치솟는 소프라노와 테너의 맑고 찬란한 음성은 비할 바 없는 예술적 감동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 대장정의 끝에는 고요히 침잠하는 최후의 음악, 제7곡 '저를 구원소서(Libera me)'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베르디의 <레퀴엠>은 지휘자 정명훈의 음악 세계를 관통하는 대표 레퍼토리이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교향악단을 지휘하며 이 작품에 관한 가장 기념비적인 해석을 수도 없이 남겨 왔다. 한 시대를 대표하는 마에스트로가 KBS교향악단과 함께 혼신의 열정으로 빚어낼 또 하나 기념비적 이정표. 그 <레퀴엠>을 경건한 마음으로 기다려본다.

글 | 황지원(음악평론가)

# G. Verdi, *Messa da Requiem*, Op.48

## LYRICS

### I. Requiem et Kyrie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Te decet hymnus, Deus, in Sion,  
et tibi reddetur votum in Jerusalem;  
exaudi orationem meam,  
ad te omnis caro veniet.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Kyrie eleison. Christe eleison.

### II. Sequenza

#### 1. DIES IRAE

Dies irae, dies illa,  
solvat saeculum in favilla,  
teste David cum Sibylla.  
Quantus tremor est futurus,  
quando iudex est venturus,  
cuncta stricte discussurus!

#### 2. TUBA MIRUM

Tuba mirum spargens sonum  
per sepulcra regionum,  
coget omnes ante thronum.  
Mors stupebit et natura,  
cum resurget creatura,  
judicanti responsura.

#### 3. LIBER SCRIPTUS

Liber scriptus proferetur,  
in quo totum continetur,  
unde mundus iudicetur.  
Iudex ergo cum sedebit,  
quidquid latet apparebit:  
nil inultum remanebit.  
Dies irae, dies illa  
solvat saeculum in favilla,  
teste David cum Sibylla.  
Dies irae, dies illa

#### 4. QUID SUM MISER

Quid sum miser tunc dicturus?  
quem patronum rogaturus,  
cum vix justus sit securus?

#### 5. REX TREMENDAE

Rex tremendae majestatis,  
qui salvandos salvas gratis,  
salva me, fons pietatis!

### 제1곡 레퀴엠과 키리에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주님,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리다.  
하느님, 시온에서 당신을 찬미함이 마땅하오니  
예루살렘에서 당신께 서원을 돌려 드리리다.  
제 기도를 들어주소서.  
모든 이가 당신께 가게 하소서.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주소서, 주님,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리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 제2곡 속송

#### 1. 진노의 날

분노의 날, 바로 그날  
시빌라와 함께 하는 다윗의 증언으로  
세상이 불꽃으로 녹아내리리다.  
심판관이 오시는 날  
크나큰 공포가 오는 날  
모든 것을 엄히 다스리시도다.

#### 2. 오묘한 나팔 소리

오묘한 나팔 소리  
만방의 무덤에서  
모든 이 불러 옥좌 앞에 모으도다.  
죽음과 세상 경악하리니  
피조물이 부활하여  
심판자에게 응답하리라.

#### 3. 기록된 책

모든 것 기록된 책  
펼쳐지니  
세상 심판 받으리라.  
그러므로 심판관께서 좌정하실 때  
무엇이나 밝혀 드러나  
어떤 것도 징벌 없이 남아 있지 않으리라.  
분노의 날, 바로 그날  
시빌라와 함께 하는 다윗의 증언으로  
세상이 불꽃으로 녹아내리리다.  
분노의 날, 바로 그날

#### 4. 불쌍한 이

그때 나 불쌍한 이라 하면 어찌하리오?  
어떤 분을 간구자로 모시리오.  
의인도 겨우 안전할 그대에.

#### 5. 두려우신 임금이시여

두려우신 임위의 임금  
구해야 할 이들을 거쳐 구원하신 분이시여,  
자비의 샘이시여, 저를 구하소서.



## 6. RECORDARE

Recordare Jesu pie,  
quod sum causa tuae viae  
ne me perdas illa die.  
Quaerens me sedisti lassus  
redemisti crucem passus  
tantus labor non sit cassus.  
Juste iudex ultionis,  
donum fac remissionis ante diem rationis.

## 7. INGEMISCO

Ingemisco tamquam reus,  
culpa rubet vultus meus  
supplicanti parce, Deus.  
Qui Mariam absolvisti  
et latronem exaudisti,  
mihi quoque spem dedisti.  
Preces meae non sunt dignae  
sed tu bonus fac benigne  
ne perenni cremer igne.  
Inter oves locum, praesta  
et ab haedis me sequestra  
statuens in parte dextra.

## 8. CONFUTATIS

Confutatis maledictis  
flammis acribus addictis,  
voca me cum benedictis.  
Oro supplex et acclinis  
cor contritum quasi cinis,  
gere curam mei finis.  
Dies irae, dies illa  
solvet saeculum in favilla,  
teste David cum Sibylla.  
Dies irae, dies illa

## 9. LACRYMOSA

Lacrymosa dies illa,  
qua resurget ex favilla  
judicandus homo reus.  
Huic ergo parce, Deus,  
pie Jesu Domine,  
dona eis requiem. Amen.

## III. OFFERTORIO

Domine Jesu Christe, rex gloriae,  
libera animas omnium fidelium defunctorum  
de poenis inferni et de profundo lacu.  
Libera eas de ore leonis,  
ne absorbeat eas tartarus,  
ne cadant in obscurum:  
sed signifer sanctus Michael repraesentet eas

## 6. 기억해주소서

자비로우신 예수여 기억해주소서.  
당신께서 걸으신 길의 이유가 저 때문이었음을  
저를 그날에 버리지 마옵소서.  
저를 찾아 헤매시다 기진맥진하셨으며,  
십자가 수난으로 저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수고 헛되지 마소서.  
올바로 갚으시는 의로운 심판관이시여,  
셈 바치는 날 오기 전에 구원 선물 내리소서.

## 7. 저는 탄식하나이다

이같이 큰 죄인인 저 탄식하오니,  
그 허물이 제 얼굴을 붉하나이다.  
하느님, 간구하는 저를 용서하소서.  
막달라 여자 마리아를 용서하시고  
강도의 소원을 들어주신 분이시여,  
제게도 희망을 베풀어주소서.  
제 기도가 비록 마땅치 않으나  
선하신 분이시여  
제가 영원한 불속에서 타오르지 않게 하소서.  
염소들 속에서 저를 뽑아내시어  
양들 사이에 자리 잡게 하시어  
당신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 8. 악인들

악인들이 심판받아  
화염 속에 던져질 때  
축복받은 이들과 함께 저를 부르소서.  
재와 같이 비통한 마음으로  
저는 기대며 간구하오니,  
제 마지막을 돌보소서.  
분노의 날, 바로 그날  
시빌라와 함께 하는 다윗의 증언으로  
세상이 불꽃으로 녹아내리도다.  
분노의 날, 바로 그날

## 9. 눈물의 날

눈물의 날 바로 그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이  
불꽃 속에서 되살아나는 날.  
하느님 저를 용서하소서,  
자비로우신 주 예수님,  
그들에게 안식을 베푸소서. 아멘.

## 제3곡 봉헌송

주 예수 그리스도님, 영광의 임금님,  
모든 교우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지옥의 벌과 깊은 늪에서  
그들을 사자의 아가리에서 구원하소서.  
지옥이 그들을 삼켜버리지 못하도록,  
그들이 어둠 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오히려 깃발을 든 성 미카엘이 그들을

in lucem sanc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Hostias et preces tibi, Domine,  
laudis offerimus.  
Tu suscipe pro animabus illis,  
quarum hodie memoriam facimus,  
fac eas, Domine, de morte transire ad vitam,  
quam olim Abrahae promisisti et semini ejus.  
libera animas omnium fidelium defunctorum  
de poenis inferni  
fac eas, de morte transire ad vitam.

#### IV. SANCTUS

Sanctus Dominus Deus Sabaoth,  
pleni sunt coeli et terra gloria tua.  
Hosanna in excelsis!  
Benedictus, qui venit in nomine Domini.  
Hosanna in excelsis!

#### V. AGNUS DEI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Agnus Dei, qui tollis peccata mundi,  
dona eis requiem sempiternam.

#### VI. LUX AETERNA

Lux aeterna luceat eis, Domine,  
cum sanctis tuis in aeternum,  
quia pius es.  
Lux aeterna luceat eis, Domine,  
Requiem aeternam.

#### VII. LIBERA ME

Libera me, Domine, de morte aeterna,  
in die illa tremenda,  
quando coeli movendi sunt et terra.  
Dum veneris judicare saeculum per ignem.  
Tremens factus sum ego et timeo,  
dum discussio venerit atque ventura ira.  
quando coeli movendi sunt et terra.  
Tremens factus sum ego et timeo,  
Dies irae, dies illa, calamitatis et miseriae,  
dies magna et amara valde.  
Requiem aeternam dona eis, Domine,  
et lux perpetua luceat eis.  
Libera me Domine, de morte aeterna,  
in die illa tremenda,  
quando coeli movendi sunt et terra.  
Dum veneris judicare saeculum per ignem.  
Libera me.

거룩한 빛 속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당신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빛을  
약속하셨나이다.  
찬미의 제물과 기도를 주님, 당신께  
저희가 봉헌하나이다.  
당신께서 그 영혼들을 위하여 받아주소서.  
저희는 오늘 그 영혼들을 기억하나이다.  
주님,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소서.  
당신은 일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생명을  
약속하셨나이다.  
지옥의 벌에서 모든 교우의 영혼을 구원주소서.  
그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소서.

#### 제4곡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만군(萬軍)의 주 하느님  
당신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하다.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 제5곡 하느님의 어린 양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들에게 안식을 주소서.  
하느님의 어린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그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제6곡 영원한 빛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취지리이다, 주님,  
당신 성인들과 함께 영원하리이다.  
당신께서 자애로우시기 때문이나이다.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취지리이다, 주님,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 제7곡 저를 구원주소서

저를 구원주소서, 주님, 영원한 죽음에서,  
두려운 바로 그 날에,  
그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나이다.  
그 때는 당신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떠나이다.  
심판과 다가올 분노가 올 바로 그때.  
그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나이다.  
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에 떠나이다.  
분노의 날, 바로 그 날, 환난과 비참의 날.  
한없이 위대하고도 고통스러운 날.  
영원한 안식을 그들에게 베푸소서, 주님,  
영원한 빛이 그들에게 비취지리이다.  
저를 구원주소서, 주님, 영원한 죽음에서,  
두려운 바로 그 날에,  
그 때 하늘과 땅이 흔들리나이다.  
그때는 당신께서 불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저를 구원주소서.

번역 | 윤종국(마르코) 신부

2024

# KBS교향악단 마스터즈 시리즈

KBS SYMPHONY ORCHESTRA MASTERS SERIES

II

KBS교향악단 X 정명훈의 Choral II  
2024. 7. 12.(금) 20:00 롯데콘서트홀

슈베르트, 교향곡 제8번 b단조, D.759 '미완성'  
F. Schubert, Symphony No.8 in b minor, D.759 'Unfinished'

로시니, 스타바트 마테르  
G. Rossini, Stabat Mater

소프라노 황수미 Sumi Hwang, Soprano  
메조소프라노 김정미 Jungmi Kim, Mezzo Soprano  
테너 김승직 Seung Jick Kim, Tenor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 Samuel Youn, Bass Baritone  
연합합창단



KBS  교향악단  
KBS Symphony Orchestra

언제, 어디서나 만나는 KBS교향악단



[www.kbssymphony.org](http://www.kbssymphony.org)



[@kbssymphonyorchestra](https://www.instagram.com/kbssymphonyorchestra)



[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https://www.youtube.com/kbssymphonyorchestra)KBS교향악단



[facebook.com/kbssymphony](https://www.facebook.com/kbssymphony)



플러스친구 KBS교향악단(혹은 'kbssforever')